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신고...코인 계좌도 포함

지난해 5억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준일 시점의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0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는 홈택스 및 손택스로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합계 잔액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으로 과거에 신고했어도 지난해 합계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예상 대상자 1만2000명에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기에 놓치지 말고 가상자산까지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위반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참고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2) 및 안내문 내 쓰인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전화상담률 거의 100% 육박... ‘AI 홈택스’ 시대 온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정부 최초로 전화 상담률 98%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2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AI홈택스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동안에는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

초로 도입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과거 상담 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이 학습돼 있으며, 상담 4분의 1을 차지하는 간단 문의 처리가 가능하다.

상담 중에 질문과 관련된 자주 묻는 Q&A, 동영상(아웃), 이용 방법 등 상세한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한다.

덕분에 경우별 상담 직원은 구체적 상담이나 복잡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 품질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둘째 아이도 적용되나요?’... 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담사례 배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최근 문의가 급증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 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했다.

나아가 ‘실수 바로잡기’ 코너를 통해 사례별 해결방법과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담았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주 묻는 세금 이슈를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